



이슈 점검

# 전기전자

## 코로나19 영향 Update



코로나19로 인한 스마트폰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고, 부품 수요 약세로 반영될 것이다.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고, 아이폰 생산 차질이 길어질 수 있다. IT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주요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된 측면이 크지만, 애플 및 중화 스마트폰향 부품의 실적 하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.

### 전기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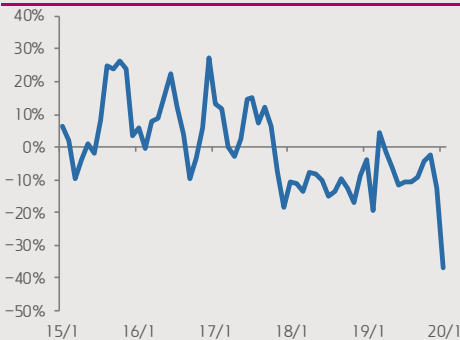
Analyst 김지산

02) 3787-4862 jis@kiwoom.com

RA 오현진

02) 3787-3750 ohj2956@kiwoom.com

중국 월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YoY)



### >>> 스마트폰 중심 생산 차질 및 수요 감소 현실화

스마트폰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고, 부품 수요 약세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. 최근 발표된 시장조사 자료들을 점검해 보자.

중국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이 크다. 중국 정보통신기술원에 따르면 1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% 급감했다. 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1월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월보다 7% 감소했는데, Huawei 출하량이 39%나 급감했고, 삼성전자는 2% 감소했다.

Counterpoint는 1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20%(YoY) 감소할 것이고, 오프라인 판매량은 50%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그러다 보니 중국 판매 비중이 60%에 이르는 Huawei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, 오프라인 의존도가 높은 Oppo와 Vivo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.

TrendForce는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이 12%(YoY)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.

### >>> 아이폰 및 중화 스마트폰향 부품 수요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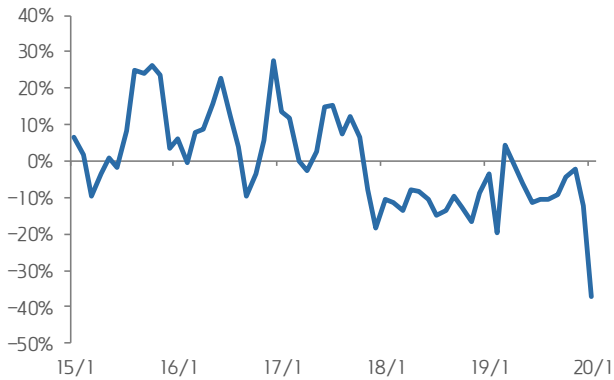
High-end 부품의 최대 수요처인 아이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게 된다. Foxconn 등 EMS 업체들은 노동집약적 성격에 따라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도 생산 정상화가 느릴 수밖에 없다. Foxconn Zhengzhou 공장이 아이폰 신모델의 대부분과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데, 2/23일 기준 생산 인력의 복귀율은 20% 수준으로 파악된다. Foxconn은 2월 말까지 중국 내 생산량의 50%, 3월에는 80%까지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. 3월 출시 예정이었던 보급형 아이폰 SE2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. Apple은 중국 내 42개 모든 매장을 폐쇄한 후 2/24일 기준 29개 매장을 재개장했는데, 역시 예상보다 느리게 정상화되고 있다.

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중화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범용 부품과 아이폰향 부품은 수요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다. 갤럭시 S20는 Huawei와 Apple 등의 생산 차질과 신모델 출시 지연을 감안할 때 경쟁 환경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.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은 일부 카메라 부품에서 중국산 생산 차질이 거론된다. 한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IT Set 수요 부진 우려가 상존하는데,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일부 상쇄할 것이다.

#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월 2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중국 월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YoY) 추이



자료: Counterpoint, 중국정보통신기술원, 키움증권

Foxconn Zhengzhou 공장



자료: Foxconn

투자의견 및 적용기준

기업	적용기준(6개월)
Buy(매수)	시장대비 +20% 이상 추가 상승 예상
Outperform(시장수익률 상회)	시장대비 +10~+20% 추가 상승 예상
Marketperform(시장수익률)	시장대비 +10~-10% 추가 변동 예상
Underperform(시장수익률 하회)	시장대비 -10~-20% 추가 하락 예상
Sell(매도)	시장대비 -20% 이하 추가 하락 예상

업종	적용기준(6개월)
Overweight (비중확대)	시장대비 +10% 이상 초과수익 예상
Neutral (중립)	시장대비 +10~-10% 변동 예상
Underweight (비중축소)	시장대비 -10% 이상 초과하락 예상

투자등급 비율 통계 (2019/01/01~2019/12/31)

매수	중립	매도
97.33%	2.00%	0.67%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